

일제, 남산에 최대 관음사 세우려했다

사이토 총독 발원문 원본 본지 입수 최초 공개

일제가 서울 남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관음성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속국으로 삼으려 했다는 자료가 최초로 공개됐다.

이는 일제 강점기 당시 제3, 5대 총독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1858-1936)가 직접 쓴 발원문(발원장) 원본으로 최근 방한한 이치노헤 스님이 군산 동국사 주지 종경 스님을 통해 본지에 제공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문화 침략'을 표방한 사이토 마코토가 어떻게 조선을 속국화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사이토 마코토의 발원장에 따르면 "조선 불교와 일본 전통과 같지만 아직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자는 신불 가호를 설법해 정신적 결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융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과 일본의 관음신앙이 같다고 밝힌 사이토 마코토는 "지금 관음상을 조동종 조계사(현 동국대)에 기증하고 약초사에 관음성지를 개설해 일본과 조선이 공존된 신앙 아래 정신적 융화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기술했다.

또한 자신이 관음 신앙을 가지고 있고, 조선 총독으로 노력한 점을 들며 영원히 자신의 범죄를 한국에서 영위해줄 것도 요구했다.

1931년 10월 작성된 발원문은 조동종 조계사 주지 다카시나 로센에게 전달됐고, 사이토 마코토는 1935

한국·일본 정신적 합일 계획

관음상 조성 초동 약초사 봉안

1940년 약초관음사 남산에 중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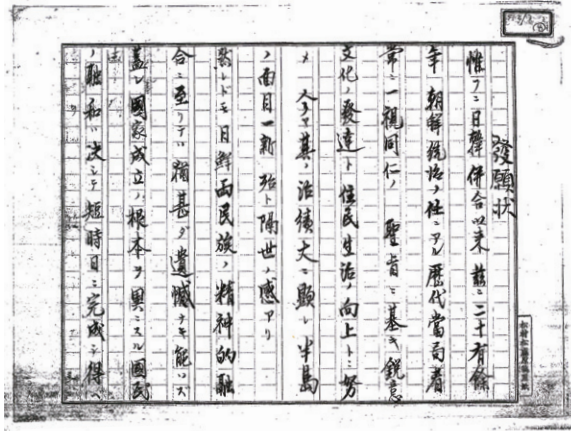
3만 2천평 부지 대규모 불사

관음신앙 통해 신민화 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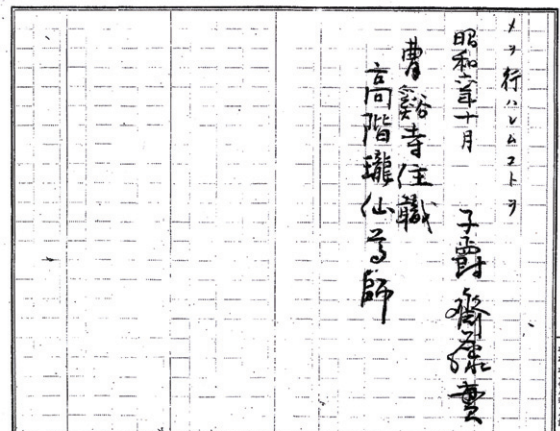
년 4월 약초정 약초사(현재 중구 초동)에 관세음보살입상을 조성했다.

세계 최대규모의 관음성지를 세우겠다는 사이토 마코토의 발원은 1933년 약초관음봉찬회(이하 봉찬회)의 발족으로 구체화됐다. 봉찬회는 취지서와 규정을 마련하고 대대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사이토 마코토는 세계 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쓴 발원문의 첫 페이지(사진 왼쪽)와 마지막 페이지(사진 오른쪽). 사이토 총독은 한국불교 관음신앙을 이용해 황민화 정책을 꾀할 약초 관음사 건립을 발원했다.



대 관음사찰 건립을 마지막까지 보지 못했다. 일본 내부 정치 갈등에서 밀린 그는 1936년 청년 장교들에게 지적당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사이토 마코토가 사망했지만 약초사에 관음성지를 조성하겠다는 일제의 의지는 식지 않는다. 봉찬회는 신축 관음당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경성부 남한성 산 10번지(현 남산예술원 웨딩홀)의 국유림 3만 2000평을 부지로 1940년 8월 '자운

산 약초관음사' 창립허가원을 총독 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후 몇몇 불당의 불사를 진행하면서 사이토 총독의 머리칼을 봉안하고 그의 공덕비를 건립했으나, 오

각의 관음전은 도면만 남아 건립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일본의 패전 후 약초관음사는 원지 불교가 인수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4월 21일 남산 약초관음사 터를 답사한 이치노헤 스님은 "답사를 통해 기단 석재 등 사찰이 있었던 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위 경관도 매우 수려하다. 문화 정치를 표방했던 사이토 마코토는 일본 도쿄의 최대 관음사찰인 아사쿠사 센소지와 견줄 정도의 격조있는 사찰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치노헤 스님은 약초관음

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의미들을 조명한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함께 답사한 종경 스님도 "약초관음사와 사이토 총독의 발원문을 통해 일제가 종교를 통해 조선을 어떻게 장악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사이토 총독은 자신이 조성한 관세음보살이 조선의 수호불이 되게 하겠다는 당치도 않는 발원을 했다"며 "현재 관음상과 함께 봉안된 창덕궁에서 하사한 대반야경 600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명확한 연구를 통해 당시 시대를 조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치노헤 스님 방한 기사 8면)

10.27법난위 3년 기간 연장

국회, 10.27법난법 개정안 법사위 제출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의 활동이 2016년 6월30일로 3년 연장된다. 사무처 신설과 기존 시행령에 명시됐던 역사관 건립 및 운영사업을 법안에 규정토록 하는 수정안이 4월 22일 국회 국방위를 거쳐 법사위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회정각위원회장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10.27법난 피해자와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수정된 것이다. 수정안은 법난위가 그동안 꾸준

히 전개해오던 사업들 중 피해자 범위 확대, 소관부처 이전 문제 등의 내용이 제외됐다. 당초 조계종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존의 법에 규정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외에 강제로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자, 강압에 의해 직위에서 해직된 자, 10.27법난 당시 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국방위를 통한 수정안에는 피해자 범위를 기존의 법대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했다. 정혜숙 기자

자승 스님, 평화위한 독도 방문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의 예방을 받고 "일본 우경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평화와 안보를 위해 독도를 방문해 등을 밝히고 경찰들을 위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경찰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대원들을 위로해주면 대원들도 위안을 얻을 것 같다"며 기뻐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중앙총회위원장 항적 스님 등 캠페인 동참

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항적 스님이 포교원과 본지의 공동 캠페인에 동참하는 금일봉을 희사했습니다. 또한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을 비롯해 재가단체들도 캠페인 후원에 심심일만 동참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 문의 : 02)2011-1903 (조계종 포교원) 02)2004-8258 (현대불교)
■ 동참계좌 : 국민 006-01-0785-361 (주)현대불교신문사
어린이 불서를 보급양 받고 싶은 독자와 사찰에서는 문의 전화나 이메일(motp79@hyunbul.com)로 신청해 주십시오.



희망과 행복의 '燈' 불 밝혔다

신년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매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행하던 점등식으로 20년 만에 광화문 북쪽 광장으로 옮겨 봉행돼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점등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선조의 빛나는 정신으로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밝은 지혜가 없는 불안에서 벗어나 불이 공존과 상생, 신뢰와 믿음으로 대화하고 교류하겠다"고 기원했다.

세상에 희망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는 불기 2557년 봉축등이 불을 밝혔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봉축 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부처님오신날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매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행하던 점등식으로 20년 만에 광화문 북쪽 광장으로 옮겨 봉행돼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점등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선조의 빛나는 정신으로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밝은 지혜가 없는 불안에서 벗어나 불이 공존과 상생, 신뢰와 믿음으로 대화하고 교류하겠다"고 기원했다. 글= 신종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이치노헤 스님 "아베는 뻔뻔한 인물"

4월 23일 기자회견서

본지의 지난해 8.15광복 특집(901호)와 올해 3.1절 특집 기고(930호)를 통해 소개된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잇달아 일본 정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치노헤 스님은 4월 23일 동국대에서 열린 <조선 침략 참회기>출판 기자회견에서 "아베 수상이 대리인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주변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그는 그 정도로

뻔뻔하다. 고이즈미 前 수상 같은 인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아베 수상의 목적은 권력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결국 참의원 선거에서 우익들의 표를 얻으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일 기자



938호 INDEX

종합	2·3	시방세계 불교심리 연극 "나도 살고 싶었다"	5
차별금지법 법안 철회		봉은사 사찰음식 경연대회	6
천태종 일심국제선원 기공		청계사 108선원 순례	12
진각종 새 집행부 출범			
조계종 간화선 중흥법회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 (법화 중헌)

저지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통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권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